

내달 시행 DTI(총부채상환비율) 규제안 확정

투기지역 모든 담보대출 30~60% 적용

6억이하 기존 아파트 대출도 제한 받아
배우자 소득자료 제출할 DTI 5% 차감

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
기과외지역의 모든 아파트 담보대출
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(DTI) 30~
60%가 적용된다. 현재 투기지역과 수
도권 투기과외지구 6억원 초과 신규
구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던 DTI규제
가 해당 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의
신규 구입은 물론 기존 아파트의 담보
대출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.
시중은행들은 27일 DTI 확대를 골
자로 한 '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

세부시행안'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부
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외지구
아파트의 신규 담보 대출을 대상으로
실시한다고 밝혔다.
시행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아파트
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
를 40%, 5천만 초과~ 1억원 이하이
면 50%를 기본적으로 적용한다.
단,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의 DTI를
적용하지 않으며, 국민주택 규모(전용
면적 25.7평)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

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 이상 대
출을 받을 때는 DTI 50%를 적용한다.
아울러 DTI 적용 기준이 신규 주택
구입 자금 대출 외에 주택을 구입한 지
3개월이 지난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
한 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.
이에 따라 이미 DTI 40%가 적용되
고 있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외
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
신규 구입은 물론, 기존 아파트를 활용
한 대출 때도 DTI 40%가 적용된다.
이같은 기본 DTI 기준에 고정금리와
분할상환 선택시 각각 5% DTI가
가산되고,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%
가산되거나 최저 5%까지 차감된다.
또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식 소
득증빙서류가 아닌 자기신고 소득시

에는 DTI가 5% 차감된다.
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
여부, 신용등급, 소득증빙 방식 등에
따라 고객에게 적용되는 DTI는 최저
30%에서 최고 60%까지 2배 차이가
나게 된다.
이와 함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
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
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. 다만 배우자
가운데 1명이라도 자기신고 소득 등
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%
차감된다.
또 새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 등을 위
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
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
약정을 맺으면 DTI가 적용되지 않
는다. 무엇보다 각 은행들이 자체적인

신용평가체계를 토대로 신용도를 산
출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개인 신용
도가 달라질 수 있다.
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향
상을 통해 DTI 가산 적용을 받는 한편,
대출 기간을 늘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
상환 등 대출환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
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.
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▲총부채상환비율(DTI)=
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
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
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
차지되는 비율.

중도금대출 DTI 적용 제외
12월 주택으로 확대도 유보

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

당분간 집담보대출에 대해서는
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가 적용되
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예초 은행들은 7월부터 투기지역과
수도권 투기과외지구 내 6억원 이하
아파트의 중도금 집담보대출에도 DTI를
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논의가 좀 더 필
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적용
시기를 늦추기로 했다.
은행들은 또 9월부터 전국의 3억원
초과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고 12월

부터 DTI 규제를 전국의 모든 주택으
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
같은 로드맵도 역시 시장상황을 바가
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.
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27
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'주택담보
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'과 관
련, "집담보대출의 경우 DTI 적용대
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주택담보
대출의 모범규준의 정착과 시장상황
을 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"이라
고 밝혔다.
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중도금 빌려주고 계약금 낮춰 부담 줄여

업체별 DTI규제 피하기

건설업체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
기과외지구 내 6억원 초과 중도금 대
출에 적용되는 총 부채상환비율(DTI)
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방식
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
놓고 있다.
27일 대구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6월
말 용인 공세리에 2천가구의 '피오르'
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
망자에 한해 회사측에서 중도금을
60%까지 빌려주고, 입주시점에 회사
가 6%의 이자를 받는 방법을 썼다.

이는 6억원이 넘어 DTI가 적용되는
48평형 이상 대형평형의 계약금을 끝
어울리기 위한 것으로, 공세리구가
100% 계약실적을 올리는 주된 요인이
였다.
롯데건설도 다음달 5일 청약을 받는
서울 중로구 평창동 롯데캐슬 112가구
에 대해 통상 분양대금의 60%인 중도
금을 절반인 30%만 6회에 걸쳐 나눠
받고, 계약금을 10%로 낮추는 등 계약
자들의 DTI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힘
을 쏟고 있다.
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투
기지역, 수도권 투기과외지구 내 6억

원 이하 주택까지 DTI가 적용되고, 연
말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만
금 계약을 제고를 위한 업계의 관측경
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
다.
대구건설 관계자는 "수도권의 경우
최근 분양시리가 냉각된 데다 DTI까
지 적용돼 청약을 해놓고도 계약을 포
기하는 사람이 많다"며 "DTI 규제로
인해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사람들
을 위해 만든 교육책 덕분에 2천가구의
계약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"고 말했
다.
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주택담보대출 금리 3년만에 최고 수준

1월중 0.23%P 오른 연 6.11%

1월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
크게 상승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수준을
기록했다.
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'2007년 1월
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'에 따라
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
(신규취급액 기준)는 전달보다 0.23%
포인트 상승한 연 6.11%를 나타냈다.

이는 2004년 2월 6.15% 이후 최고 수
준이다.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
월과 11월 5.69%를 기록한 이후 두달
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
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포함
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전달에 비해 0.
23%포인트 상승한 6.20%를 기록해
2004년 1월 6.34% 이후 가장 높은 수
준으로 올라섰다.
한은은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

1월 가중평균 금리를 '간이조사'한 수치
를 공개했으며 당시 자료에는 1월 주택
담보대출금리가 연 6.15%, 가계대출금리
는 6.18%로 이번 발표와는 약간씩 달
랐다. 한은은 양도성예금증서(CD) 유통
수익률이 상승한데다 일부 은행이 가
산금리를 인상하고 1·11 대출규제 조치
등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
것으로 분석했다.
/장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한국 경쟁력 中·말레이시아에도 밀려

국가경쟁력 강화위 만들어 대비해야

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싱가포르
와 홍콩, 대만은 물론 중국과 말레이시
아에도 밀리는 상황에 이르러 대책마련
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우리나라가 저력에 맞게 세계 5위권
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을 올리려면 국가
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
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.
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

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
례토론회에서 이런 내용담은 '한국의
국가경쟁력 강화위 만들기 위한 정책 어젠다'
에 대해 발표했다.
그는 "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말형격
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5
년 세계 17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았고,
그외에는 20위에서 40위사이를 맴돌고
있다"고 지적했다.
/연합뉴스

조 교수는 "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
으로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)
국가경쟁력연감에서 세계38위, 산업정
책연구원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23위,
세계경제포럼(WEF) 국가경쟁력보고서
에서 24위에 각각 머물렀다"고 밝혔다.
조 교수는 "반면 아시아의 네마리 용
중 싱가포르의 WEF국가경쟁력 보고서
에서 1996~1999년 연속 1위를 했고, 홍
콩은 1996~98년에 연속2위, 대만은
2002년 3위를 했다"면서 "중국은 지난
해 19위,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위를 했
으니 이들 국가도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
한 셈"이라고 설명했다.
/연합뉴스

함께 일합시다



업 제 명	모 집 분 야	자격 및 경력	연봉(만원)	마감일	연락처
데코하우스	인터넷쇼핑몰 제품포장 및 매장관리	고졸/경력5년	1000~1200	02/28	062-430-8848
새린	관리 및 비서 사원모집	초대졸/경력무관	1600~1800	03/02	062-372-7111
대현매일신문	취재/편집 기자모집	고졸/경력무관	1200~1400	03/02	062-675-1661
금성빌름	정규직 영업 및 영업관리 경력사원 채용	고졸/경력2년	1400~1600	03/02	062-945-1114
에초디자이너	건설/기획/마케팅 사원모집	대졸/경력3년	회사내규	03/02	062-233-0414
대명하이텍	자동제어관련업무 사원모집	고졸/경력무관	회사내규	03/03	062-953-6444
대정산업	경리/회계/자금 분야 주임 및 대리 모집공고	초대졸/경력4년	회사내규	03/03	062-953-2300
에넥스 본사	(주)에넥스 신입사원 모집	대졸/경력무관	회사내규	03/03	062-943-5011
지티엔	경리/사무관리 경력사원 모집	고졸/경력무관	1400~1600	03/05	062-941-5300
신들네트웍스	기술직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	초대졸/경력무관	회사내규	03/05	062-372-9280
리콜드	[롯데백화점 광주점] 귀금속 판매사원모집	고졸/경력무관	회사내규	03/05	051-505-5002
진아소시에이즈	[인사/노무관리] 정규직 대졸 경력사원 모집	초대졸/경력2년	회사내규	03/07	011-1796-4814
삼산기공	총무 및 공무 사무업무 사원모집	고졸/경력무관	1200~1400	03/10	062-954-3390
인텔렉스서비스	LG텔레콤 지역매장 정규직 상담사 모집	초대졸/경력무관	1600~1800	03/12	010-5740-1774

(광주점코리아 512-6210 제공)



나도 패션모델

광주신세계가 마련한 '고객모델 패션
쇼'에 참석한 고객들이 27일 백화점 4층
여성복 매장서 올 봄과 여름에 유행
할 여성복을 입고 전문모델못지않은 워킹을 선보이고 있다. 광주신세계는 이날 13
개 여성복브랜드 이용 우수고객 60여명을 모델로 초청했다.
/남영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소형차 전성시대 온다

교통·환경·에너지문제 해결 대안 수요 급증

극심한 교통정체, 환경문제, 에너지문제 등으로 세계 자동
차시장에서의 소형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
망이 27일 나왔다.
일본 자동차경쟁개발연구소 요시다 노부요시 소장이 일본
경자동차협회에 기고하고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요약,
번역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, 서유럽, 일본 등 세계 주요 자동
차시장에서 경차 및 소형차(이하 소형차)의 판매비율이 점차
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미국시장의 경우 2000년 소형차 점유율은 12.0%였으나, 지
난해 13.9%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서유럽
시장의 경우에는 33.9%에서 35.4%로 증가했다.
소형차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경차와 소형차의 판매
비율은 2000년 31.4%, 45.6%에서 각각 35.3%, 49.5%로 늘
었다.
요시다 소장은 "전세계 판매량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
는 주요 3개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도 최근 소형차를 중심으로
모터라이제이션(motorization, 자동차의 광범위한 보급현상)이
일어나고 있어 소형차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"
고 분석했다.
/연합뉴스

전경련 선장 '표류'

차기회장 선출 실패... 당분간 강신호회장 체재로

전국경제인연합회가 46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에서 회장
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됨에 따라 향후 만만치 않은
과정이 예상된다. 한달 이상 계속된 회장단 논의에서 차기 회
장 선출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경련은 27일 총회 개최
를 강행했으나 예상대로 단일 후보 합의추대에 실패했다. 전
경련은 당분간 강신호 현 회장체제로 운영된다.
이 과정에서 회장단의 일원인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이 '70
세 차기 회장 불가론'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받은 회장직 제안을
공개 거부해 회장단 내 갈등 구조의 일단락을 드러냈다.
당장 이번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유력시됐
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'만장일치'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
음은 총회 결과를 통해 분명해졌다.
따라서 조 회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 같은 반
대의견을 어떻게 실효할 지가 향후 회장단 합의의 관건이 될
것으로 보인다.
그러나 자신이 받은 회장직 제안을 공개 거부한 이준용 대
림산업 회장의 지적대로 "그동안 5, 6차례나 회장단 회의를
갖고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" 문제에 대해 앞으로 한달간
재차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.
조 회장으로 의견을 모으는데 끝내 실패한다면 김승연 한화
그룹, 조양호 한진그룹,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, 현재현 동
양그룹 회장 등 스스로 회장직을 맡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
'과거의 후보들'을 다시 논의대상에 올릴 수 있지만 이 역시
쉽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.
/연합뉴스

근로시간 가장 긴 직업
주방장·조리사

주 평균 57시간 일해 주방장, 조리사 등

주방장, 조리사 등
조리 및 음식서비스
종사자들이 주당 평균 57.1시간을 일해 전체 직업 중
근로시간이 가장 긴 반면, 대학 조교와 학원 강사 등
은 평균 35.4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직업을 46개로 분류해
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'조리 및 음식서비
스 종사자'들이 주당 평균 57.1시간을 일해 전체 직업
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.
'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'에는 주방장, 조리사,
바텐더, 음식·주류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.
이어 가정보육사, 간병인, 약사보조원 등이 속한
'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'가 주당 평균 56.6시간으
로 그 뒤를 이었고 '도소매판매 종사자'가 55.2시간,
철도·지하철 기관사 및 택시·버스·트럭 운전사 등을
포함하는 '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'가 54.2시간으로 집
계됐다.
/연합뉴스

SKT·KTF 번호이동 차단 의혹

서버 수시간씩 닫혀... 소비자들 불만

국내 이동통신 양대업체인 SK텔레콤과 KTF가 임의로 소
비자들의 번호이동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
된다.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
업자인 SK텔레콤과 2위 사업자인 KTF가 소비자들의 선택권
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27일 온라인 쇼핑몰과 대리점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
부터 SK텔레콤과 KTF간 번호이동 서버가 10~20분씩 짧게
열린 뒤 수시간씩 닫히는 등 사태가 반복되며 번호이동 절차
가 지연되고 있다.
이에 따라 대리점마다 번호이동을 통해 새 전화를 구입하려
는 소비자들이 수 일씩 기다리거나 아예 번호이동을 포기하는
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.
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판매점에서는 소비자들에
게 "전산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막혀 개통처리가 원활하지 못
하다"는 내용의 해명성 게시물을 띄우기도 했다.
/연합뉴스